

계열화 확대를 추진하는 대현축산

취재 : 배 용 식

대현축산(대표 : 왕기창)은 지난 '88년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권장과 지역사회에 소득원을 공유하고 기업양돈 자체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첫해 한 농가를 시험대상으로 계열화를 시작하여 현재 7개 농장에서 계열화를 하고 있다.

장호원에서 택시를 타고 여주방면으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현축산(경기도 가남면 송림리 산74-1, TEL : (0337)82-5469)에 도착하면 양돈 농장이라기 보다는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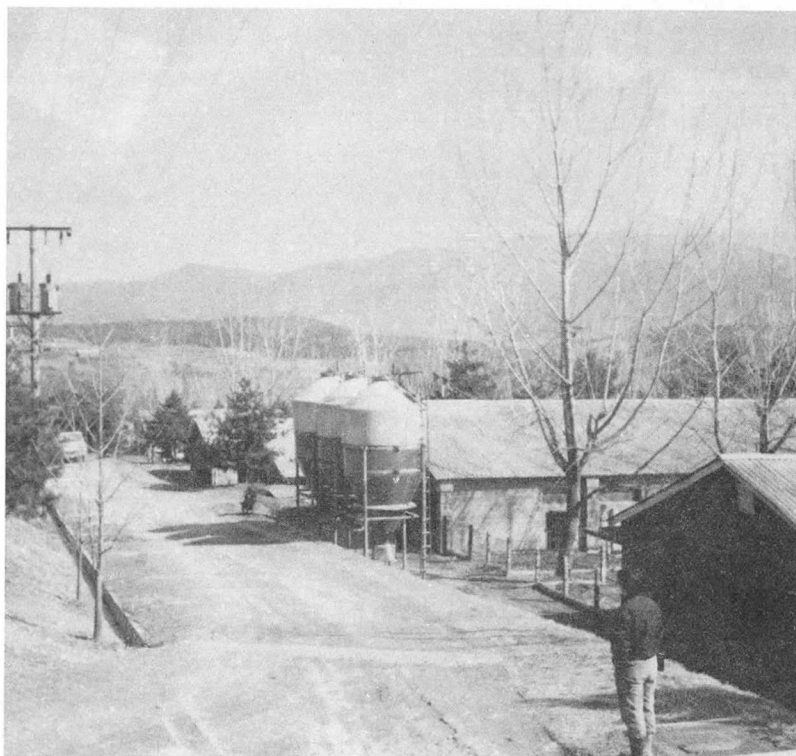
현재 대현축산은 총 부지가 75,634평으로 순수종돈 480두, F₁모돈 900두, 계열농가의 비육돈까지 합쳐 총 1만5천두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대현축산은 어느 돈사든 돼지의 얼굴 생김과 체형이 마치 쌍둥이를 보는것 같이 흡사할 정도로 균일화 되어 있다. 이 농장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볼 때 얼굴모양에는 개체의 체형변화는 물론 산육능력이나 생산성, 지방층의 두께 체질의 강약 및 후대에 생산될 자돈의 생산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육돈은 4원교배로 그 성적이 우수

이에따라 랜드레이스×요크셔 또는 요크셔×랜드레이스에서 생산된 F₁이 산자능력 및 산육능력에서 고르게 발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대현축산의 최종 비육돈은 4원교배(LW×DH, WL×HD)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각 계열화농가에 공급하거나 자체에서 비육하며 그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

한편 '78년 4월 랜드레이스를 기초축으로 1백60여두의 종돈을 수입하여 이를 기초축군으로 품종별 특징에 따라 계통조성을 하여 지난 3월 6일 일본으로 종돈을 수출하므로써 종돈수출로도 잘 알려진 대현축산은 두당 판매가격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3천달러(한화 약 2백16만원)에 달해 양돈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현재 대현축산은 위탁농가로 여주군 가남면에 2개, 점동면 1개, 이천군 장호원읍에 4개 농가로 지역사회의 소득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열화를 확대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열주체인 대현농장의 계약조건과 선정대상을 보면, 계약에서 현농가의 현실



대현축산의 월간 계열화
두수는 800두로 7개
농장에서 상시 2,500
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회전율 3.5회로
농가에서 받는 두당
수입은 11,000~13,000
원이다.

▲ 대현축산 전경

을 감안하여 담보설정은 하지 않으며 대신 재정보증인 2명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선정대상으로는 1회 분양두수에서 200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폐수처리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농가로 8t 트럭이 농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위탁사육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공급, 출하

대현축산은 계열화로 위탁농가에 분양할 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35~40kg(90-100일령)내외의 건강한 자돈을 공급해주고 출하체중은 내수용 90kg, 수출용 105kg을 기준으로 하여 90~110일정도 위탁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다.

두당 사육비로 내수용 90kg기준 9,400원, 수출용 105

kg기준 11,800원을 주고 있다. 위탁농가에 대한 전체사육두수에서 사고율 1%를 계열주체인 대현농장에서 인정해 주고 종료체중과 사료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산해 주고 있다.

예를들면 400두의 자돈을 위탁농가가 공급받았을 때 1%미만인 2두가 죽고 398두를 출하했을 때 나머지 2두에 대한 가격을 당시 출하가격으로 현금으로 위탁농가에 계산해준다. 1%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위탁농가가 변상한다. 체중은 계약기간에 맞춘 종료체중(90kg, 105kg)의 증감에 따라 환산하여 현금으로 보상과 변상을 한다. 사료에 있어서는 사료요구율을 내수용 3.4, 수출용 3.6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두수 × 위탁농가에서의 증체량(출하체중 - 공급체중) × 3.4 (3.6)의 계약 사료량을 정해놓고 사료소비량의 증감에 따라 보상과 변상을 현금계산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하여 대현축산의 거의 모든 농가들은

보상을 받아 계약사육비(9,400원, 11,800원) 보다 항상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현축산의 월간 계열화두수(분양두수)는 800두로 7개 계열농가에서 상시 2,5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열농가당 200~700여두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연간 회전율은 3.5회로 300두 규모의 자가노동력 농가에서 계열주체인 대현농장에서 받는 사료비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두당수입이 11,000~13,000원으로 연간 1,155만원~1,365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사료는 대현축산에서 배합비율을 정한 주문사료

사양관리로서 사료는 사료공장에 배합비율을 알려주고 받는 주문사료로 젓돈 A(갓난돼지사료), 젓돈 B(젓먹이 사료), 육성돈사료, 비육돈 사료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젓돈A사료는 40일령, 젓돈B사료는 80일령, 육성돈사료 120일령, 비육돈사료는 출하때까지 급여하고 각 계열농가에는 90~100일령 사이에 자돈이 공급되므로 계열농가는 육성돈, 비육돈사료만 공급받고 있다. 계열농가에서 사료효율은 평균 3.3~3.4인데 톱밥발효돈사나 스크레파 설치가 된 농가의 성적보다 오히려 재래식 돈사의 성적이 좋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대현축산은 톱밥발효돈사나 스크레파설치가 된 농가는 아침에 사료급여가 끝나면 하루종일 관리자를 볼 수 없으며, 재래식돈사는 돈분처리 등 관리자가 자주 관리를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계열농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정기검진을 주1회하고 출하 담당자는 주 4~5회이상 방문한다. 또한 한달에 한번 위탁농가 회의를 갖고 관리방법, 기후변화, 돈분상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때에 맞춰 대책을 세우고 성적저조 농가나 신규농가 대상은 방문시간과 회수를 연장한다.

계열화를 하므로서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계열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위탁농가들이 계열화주체인 대현축산의 사양프로그램대로 해주지 못하므로서 위탁농가와 대현축산의 이익이 감소하고 대부분 부업형태로 영세하고 아침관리가 끝나면 하루종일 관리자를 볼 수 없다. 또한 각 농가들마다 환경이 달라 증체곡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육가공공장 등과 배당출하를 하고 있는 대현축산의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고 각 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여름 장마때 폐수관리가 한계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계열화를 하므로서 대현축산도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한 육성돈 때부터 출하 때까지 각 계열농가에서 사육하게 되므로서 자체내 폐수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계열화주체인 대현축산은 자돈공급, 수송, 출하, 사료공급을 하고 있으며 계열농가는 약품비와 장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계열농가에서 실질적 비용으로 드는 약품비는 각 계열농가로 분양되기전인 대현축산에서 이미 다 투여된 상태로 각 계열농가는 약품을 쓸일이 거의 없고 분양 받을 때 스트레스 감소약, 소독약 등을 쓰는 것이 전부이다.

위탁사육비 15% 상향조정

대현축산은 지금과 같은 계약조건에서 양돈농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사육비를 4월초 현재수준에서 15%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탁농가당 공급에서 출하까지 99.5%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 농가소득원으로나 대현축산 상호 별문제가 없으므로 계열화를 원하는 농가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계열화뿐만 아니라 종돈수출로 국내외적으로 국위선양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대현축산에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